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8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유네스코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적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 36명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IBC(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BC에서는 2019년 제26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주제로 '신경기술의 윤리적 의미'와 '미래세대 보호 원칙'을 선정하고, 지난 2년간 두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신경기술(Neurotechnology)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개입이나 뇌 데이터의 사용을 포함하는 신경기술 분야에서 한편으로 뇌질환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정체성, 사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정상과 증강 사이의 모호함, 이러한 기술접근에의 형평성, 뇌데이터 사용의 오남용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전자편집기술을 포함한 생명 과학의 최근 발달이 생식계열 세포의 형성 및 변형 등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 세대 건강불평등의 핵심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현재 IBC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경석 교수님을 모시고 그간 IBC의 논의 내용과 권고안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응과 실천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름과 소속, 참석 의사를 아래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유네스코 IBC의 신경기술 윤리 및 미래세대 보호 보고서 내용과 함의
- 연 자 : 최경석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현 IBC 위원)
-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 (사전등록 필수)

※ 사전등록을 하신 분에게 콜로키움 참석 가능한 링크 및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메일로 성명과 소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문의 : 조계형(joh0417@nibp.kr)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미리 접수받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은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joh0417@nibp.kr\)](mailto:joh0417@nibp.kr)로 12월 10(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